



“행복의 길 안내 불서 만들며 사명감”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출판사 '바움'을 찾아냈을 때, 어쩌면 이것이 모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 바움이 불서전문출판사가 아니라서. 열심히 불서를 출간하고 있는 전문출판사들에 비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심어린 '마음', 그것을 일반 출판사에서 찾을 수 있을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바움의 이성훈 사장을 만나면서 이 같은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유명 작가 휘트먼과 같은 인물들의 평전이나 일기 등 바움만의 눈으로 기획한 책들도 많으니. 불교계에서 바움을 주목하는 것은 역시 바움의 불서 때문이다. 일반출판사에서 굳이 불교 서적들을 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교가 단순히 좋은 소재기 때문일까.

“저 자신이 불자라서기도 하지만 불교만큼 '생활 철학'에 가까운 종교가 없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이 허둥대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불교는 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솔직히, 종교·명상 파트에서 굳이 불교만 다루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자꾸 이쪽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연인가 싶었어요.”

바움 불서 중 특히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는 주요 서적에서 베스트 도서로 꼽히기도 했다. 실제 일상에서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미덕이 있는 이 책은, 각박하게 쫓기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식 가르침이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준 한 예가 됐다.

불서를 펴내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을까. 근간인 <달라이라마 평전>을 낼 때, 좀 곤란한 일이 있었단다.

“저희가 이 책을 기획한 것이

2003년이었습니다. 원래 2004년에 출판하려 했는데 원서 출판사 쪽에서 한국어판 서문을 달라이라마에게 직접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 서문 받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2007년에야 받은 서문의 날짜는 '2004년 5월 18일'. 원서 출판사가 약속해지던 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날짜를 그대로 표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올해 5월, 드디어 출간했는데 이번에는 눈 밝은 독자들의 '손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근 티베트가 폭력 사태로 화두가 되니, 이런 책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였다.

<달라이라마 평전>은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갖게 됐지만 이 사장은 “이런 독자들이 있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책을 낼 수 있다”며 고마워한다. 일반 출판사 사장으로서 이 사장은 불서 출판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는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는다.

“가끔 출판사 사장들과 만나면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불자들이 책을 좀 안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요. 교회에서는 책이 생산되면 신도들이 주로 책을 사보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불자 입장에서 참 안타깝지요.”

게다가 '우리 불서는 왜 서양의 그것처럼 쉬울 수 없는가'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많다고 한다. 가령 번역서를 읽을 때 '연기'를 '상호의존적 공시발생'이라 번역한 것을 보면서 말의 뜻이 명확하게 다가온다면 불서가 굳이 어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그가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불교계에 바라는 점도 있다. 한국 불교가 해외로 뻗어나가려는 이 때, 불교계의 용어 정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실

제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조차 원활치 않다고 생각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이 사장이 바움에서 펴낸 일련의 책들을 살펴보니 모두 하나로 꿰여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행복한 삶'이다. 바움의 어떤 책을 통해서든 현대인들이 마음을 추스르면서 방향을 찾고 행복하게 살 길을 찾기를 바랄 때, 그 때가 '출판인 이성훈', '불자 이성훈'이 합일되는 순간일 것이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바움 BEST 10		
순위	도서명	저자인
1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	에크나트 이시워런 저, 박용희 옮김
2	말만대장정에 숨어있는 참 지혜로운 이야기	진현종
3	말만대장정에 숨어있는 참 기묘한 이야기	진현종
4	신비이야기	정욱
5	나무가 꾸는 꿈	김재진
6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줄	문윤정
7	젓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	문윤정
8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사는 부처님 말씀	김정민
9	꽃을 드니 미소전체	이용범
10	달라이라마 평전	클로드 로방송 지음, 박용희 옮김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인도성지순례기
월주 스님 | 보현출판사 | 2006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평화인권센터 소장 안신권

삶에 지친 영혼에 위안 주는 여행

나그네 같은 삶의 여정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운다. 그 모든 것이 인생을 더욱 알아가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불교는 나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영혼을 살찌우는 신앙이다. 이에 나의 영혼과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불서를 소개 한다.

한 편의 좋은 책을 만난 것은 삶의 큰 지침서를 마련한 것과 같다. 나에게 월주 스님의 <인도성지순례기>가 바로 그런 책이었다. 비단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지혜를 삶에 실천하여 사회에 더욱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으니 말이다. 종교와 철학의 나라이며 세계 5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인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촌,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다. 나 또한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니. 짧은 시간 동안의 독서 여정을 통해 내 인생을 알아가는 기쁨,



고통 속에 빠진다면 차라리 없던 것보다 못한 것일까. 종교가 종교다 워지려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삶, 자연과 조화하고 모든 존재와 소통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월주 스님은 <인도성지순례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다르타 부처님의 고행인 인도에 남아있는 원형적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토대

세계5대 문명 발상지 인도의 정신 배워 “모든 존재와 소통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지면을 통해 저자는 물론 월주 스님이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말로 하기 벅할 정도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부처님처럼 세상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순례로 삼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한 뿌리에서 나온 소중한 존재이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사랑하라'다. 흔히 종교는 인간 삶의 고향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연 현재 종교라는 존재가, 늙고 병들어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고향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자 종교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종교로 인해 삶이

로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저자 월주 스님의 이야기를 들 어보자.

“인도 성지순례를 통해 부처님께서 깨달아 계시하신 공·해탈·연기·중도·지혜자비·평등·상생·평화사상만이 인류를 정복(淨福)의 길로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라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모든 존재와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하여 대승보살도의 정신으로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자비희사(慈悲喜捨)·사무량심(四無量心)·육바라밀(六波羅密)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불서 한 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신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꽹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회사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영천목공예사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물관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웃칠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웃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 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 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수작업 목탁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언허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중식]

블랙솔트

천연 유황 온탕욕을 가정에서 즐기세요.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 히말리아산 천연유황소금

블랙솔트는 고대 해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열에(5,000°C이상) 의해 해수(바닷물)가 증발되며 산으로 형성된 천연안염과 용암에서 분출된 천연유황 성분으로 고대 청정해수를 구성하는 천연 미네랄과 무기질이 원형 그대로 함유된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황온천보다 탁월한 천연유황 온탕을 가정에서 즐기다

블랙솔트는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족염 성분과 천연유황 성분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온탕욕에 따뜻한 물과 블랙솔트를 풀어주시면 유황온천보다 효능이 뛰어난 천연유황해수 온탕욕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토피, 무좀, 비듬 등에도 효능

100:1 정도의 물과 희석하여 완전히 용해된후 인체의 해당부위에 충분히 스며들후 가볍게 마사지 한 후 씻어주시기를 반복하면 아토피등 피부가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솔트는 피부미용, 습진, 신경통에도 최고!

블랙솔트에 함유된 자족염 성분은 피부 미용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가꾸어 주며 피지 제거 작용이 우수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부패시키는 산화력을 억제하여 물질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매우 탁월하여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드리며 피부의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독점수입판매 : 블랙솔트코리아 02)723-9184
농협 : 강환영 053-12-125418 원산지 : 히말리아